

생전 칠재 [생칠재]의 범

2023.08.

[社] 世界佛學苑

생칠재 진행 순서 및 설단

- | | |
|-----------------------|------------------|
| ① 법사 입장 좌정 | ② 도량엄정·참회·결계/ 3 |
| ③ 상위 정례/ 11 | ④ 시왕소청권공/ 11 |
| ⑤ 재승(승보공양)/ 16 | ⑥ 법석/ 16·금강경/ 17 |
| ⑦ 고사소청 권공/ 39 함합소/ 43 | ⑧ 신마소청 권공/ 46 |
| ⑨ 조상영반[진전식]/ 49 | ⑩ 전시식[헌식규]/ 57 |
| ⑪ 소청 제위 봉송/ 62 | ⑫ 대중공양 |
- 부록/ 65

설단

1. 시왕단 상단 아래
2. 고사단 중단 중앙
3. 신마단 정문 앞
4. 조상단 영단 중앙
5. 전시식 대문 밖(마당, 혹은 복도)

※ 각단 권공은 운심권공이므로 향등화와 삼색 삼찬을 원칙으로 한다.

※ 고사단 권공 때 신마단 권공을, 영단 제사 때 전시식 동시 진행.

엄정 · 참회 · 결계의식

嚴淨 懺悔 結界儀式

- 嚴淨·供養(엄정공양: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절에 도착하면 불전에 헌공하며 인사드림)
- 法師 入場(11인 법사 입장-16쪽 참조, 정표·부표 우측에서 진행, 대중은 경전·계송 함께 독송)
- 三歸依禮(삼귀의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며 절을 함)

지심귀명례 시방상주 일체삼보

至心歸命禮 十方常住 一切三寶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에 항상 계시는 일체 삼보님께 절하옵니다.

- 觀音請(관음청: 다라니를 받기 위해 관세음보살을 청함)

일심으로 천수천안 관음보살님을 청하오니,
본래 서원 잊지 마시고 유정을 불쌍하게 여겨
이곳에 오셔서 대비주를 설해주소서.

一心奉請 千手千眼觀自在菩薩 觀世音菩薩 惟願 不違本誓 哀愍有情 降臨此地 說大悲呪

정구업진언 (말로 지은 행위를 깨끗이 하는 진언)

淨口業眞言

‘옴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스바하’ [삼편]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 (제신[토지신]을 청해 옹호를 부탁드리는 진언)
五 方 內 外 安 慰 諸 神 眞 言

나모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스바하’ [삼편]

개경계주 (진리의 곳집을 여는 계승과 진언)
開 經 偈 呪

높고 깊은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지만
이제 보고 들어 지너, 참된 의미 깨치리다.

無上甚深微妙法百千萬劫難遭遇 我今見聞得受持 願鮮如來真實意

‘옴 아라남 아라다’ [삼편]

○千手呪請(천수주청: 관음보살님께 다라니를 청함)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광대하고 원만하여
걸림 없는 대비심의 다라니를 청합니다.

千手千眼觀自在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啓請

크신 원력 좋은 상호 천손으로 보호하고

천안으로 살피시며 법문 속에 밀어 펴고
무위심서 자비 내어 저희 소원 이뤄주고
모든 죄업 없애주는 관세음께 절합니다.

稽首觀音大悲主 願力洪深相好身 千臂莊嚴普護持 千眼光明遍觀照
眞實語中宣密語 無爲心內起悲心 速令滿足諸希求 永使滅除諸罪業

천룡증성 옹호하여 온갖 삼매 이뤄지며
지닌 몸은 빛이 나고 지닌 마음 자유롭네.
번뇌 씻고 고해 건너 보리방편 얻게 되며
송주하며 귀의하니 원하는 일 이뤄지네.

龍天衆聖同慈護 百千三昧頓熏修 受持身是光明幢 受持心是神通藏
洗滌塵勞願濟海 超證菩提方便門 我今稱誦誓歸依 所願從心悉圓滿

나모대비관세음 일체 법을 알려 하니,
나모대비관세음 지혜 눈을 얻게 되고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知一切法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得智慧眼

나모대비관세음 일체 증생 건져내는

나모대비관세음 좋은 방편 얻게 되며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度一切衆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得善方便

나모대비관세음 지혜 배에 어서 올라

나모대비관세음 고통바다 건너가고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乘般若船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得越苦海

나모대비관세음 계정혜를 속히 갖춰

나모대비관세음 열반 언덕 올라가며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得戒定道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登涅槃山

나모대비관세음 무위의 집 함께 모여

나모대비관세음 진리의 몸 이루리다.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會無爲舍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同法性身

칼산지옥 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내가 가면 화탕 절로 사라지며

모든 지옥 내가 가면 지옥 절로 없어지고,

我若向刀山 刀山自摧切 我若向火湯 火湯自消滅 我若向地獄 地獄自枯竭

아귀세계 내가 가면 아귀 절로 배부르며
아수라계 내가 가면 악한 마음 무너지고,
축생세계 내가 가면 지혜 절로 얻어지리.

我若向餓鬼 餓鬼自飽滿 我若向修羅 惡心自調伏 我若向畜生 自得大智慧

나모관세음보살마하살 나모대세지보살마하살
南無觀世音菩薩摩訶薩 南無大勢至菩薩摩訶薩

나모천수보살마하살 나모여의륜보살마하살
南無千手菩薩摩訶薩 南無如意輪菩薩摩訶薩

나모대륜보살마하살 나모관자재보살마하살
南無大輪菩薩摩訶薩 南無觀自在菩薩摩訶薩

나모정취보살마하살 나모만월보살마하살
南無正趣菩薩摩訶薩 南無滿月菩薩摩訶薩

나모수월보살마하살 나모군다리보살마하살
南無水月菩薩摩訶薩 南無軍荼利菩薩摩訶薩

나모십일면보살마하살 나모제대보살마하살
南無十一面菩薩摩訶薩 南無諸大菩薩摩訶薩

나모본사아미타불 [삼편]

南無本師阿彌陀佛

[상단의 중앙에 정수를 준비해 놓고 대비주로 가지하고, 증명(혹은 회주) 법사는 양지에 감로수를 묻혀 '사라사라 시리시리' 하는 곳에서부터 도량의 사방에 감로수를 뿌려 도량과 대중을 정화함]

신묘장구대다라니

神妙章句大陀羅尼

나모라다나다라야야, 나막 알야 바로기데새바라야 모디사다
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음, 살바 바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막 까리다바, 이맘 알야바로기데새바라 다
바, 니라간타 나막 하리나야 마발다 이샤미, 살발타 사다남,
수반, 아예엄, 살바 보다남 바바 말아 미수다감, 다냐타, 음,
아로제, 아로가마디, 로가디가란데, 헤헤 하례, 마하 모디사다
바, 사마라 사마라 하리나야, 구로 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 도로 미연데 마하미연데, 다라 다라 다린나례새바라, 자
라 자라 마라 미마라, 아마라 몰데, 예헤헤 로계새바라, 라아미
사 미나사야, 나베사미사 미나사야, 모하자라미사 미나사야,
호로 호로 마라, 호로 하례, 바나마나바, 사라 사라 시리 시리
소로 소로, 못다 못다 모다야 모다야, 매다리야 니라간타, 가마
사 날사남 바라하라나야 마낙 스바하, 싯다야 스바하, 마하싯
다야 스바하, 싯다유예새바라야 스바하, 니라간타야 스바하,
바라하목카 싱하목카야 스바하, 바나마 하따야 스바하, 자가
라옥다야 스바하, 상카 섭나 네모다나야 스바하, 마하 라구타
다라야 스바하, 바마 사간타 니샤 시체다 가릿나 이나야 스바
하, 마가라 잘마 니바사나야 스바하, 나모라다나다라야야, 나
막 알아 바로기데새바라야 스바하 [1편]

○四方讚(사방찬: 가지주수한 물을 사방에 뿌린 후에 하는 계송)

동방에 물 뿌리니 도량이 깨끗하고,
남방에 물 뿌리니 천지가 청량하며
서방에 물 뿌리니 정도가 이뤄지고,
북쪽에 물 뿌리니 영원히 평안하네.

一灑東方潔道場 二灑南方得清涼 三灑西方俱淨土 四灑北方永安康

○道場讚(도량찬: 도량이 청정해졌음을 찬탄하는 계송)

청정도량 티끌 없어 삼보천룡 예오시네.
미묘 진언 외우오니 대자비로 살피소서.

道場清淨無瑕穢 三寶天龍降此地 我今持誦妙眞言 願賜慈悲密加護

[상황에 따라 작법무를 할 수도 있음]

[이렇게 하여 도량의 엄정과 결계를 이루게 되었으므로 삼보님께 인사를 드리고 당재왕과 시왕 및 권속을 초청하게 된다.]

○舉佛三頂禮(거불: 삼보를 칭명하며 경례를 드림, 재자 헌향)

나모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절]
南無 淸淨法身 毘盧遮那佛

나모 원만보신 아미타불 [절]
南無 圓滿報身 阿彌陀佛

나모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 [절]
南無 千百億化身 釋迦牟尼佛

[재자가 불전으로 나와 예수재를 열게 된 소를 아뢰는데, 상황에 따라 어산이 대신 읽을 때는 재자가 불전 앞으로 나와 합장하고 서서 하며, 생략할 수도 있음.]

[十王都請勸供]

시왕도청권공

[재주의 생년에 따른 당재왕을 십대왕과 권속을 한꺼번에 청하여 권공하는 의식을 시왕도청권공이다.]

일심으로 예경하며, ^[반배] 업의 저울로 태어날 곳 살피시는데,
보살의 자비를 감추셨으나 천신의 위엄을 드러내며, 높고 높
은 방편 헤아리기 어렵고, 넓고 넓은 신통도 측량할 수 없으시

며, 증생의 선악을 살펴 고락과 죽이고 살리거나, 명을 늘이고 짧게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관하시는 금일 당재 모왕과 십대 왕을 필두로 태산부군 · 판관귀왕 · 장군동자 · 감재사자 · 직부사자 · 졸리 등 권속을 청하오니, 삼보의 법력에 의지해 도량에 강림하여 공양을 받으소서.

南無 一心奉請 權衡應跡 實報酬因 內秘菩薩之慈悲 外現天神之威猛 崑崙而方便難思 浩浩而神通莫測 於諸衆生 校察善惡 明分苦樂 殺活延促 皆悉主宰 大威德主 今日當齋 第某大王 等 十大王 爲首 泰山府君 判官鬼王 將軍童子 監齋使者 直符使者 卒吏 諸般並從眷屬 唯願承三寶力 降臨道場 受此供養 “香花請”

[시왕도위패는 문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청하오니, 삼보님의 법력에~’ 할 때쯤 시왕도위패가 불단에 이르고, 이때쯤 입장하는 위패를 향해 꽃을 뿌린다. 청사를 할 때 시왕 도위패를 모신 집사가 상단에 이르면 정표가 ‘헌좌계주’ 하고 집사는 위패를 받아 상단 아래에 모셔놓으며, 부표는 계주를 엄송한다.]

獻座偈呪

헌 좌 계 주

보배 좌석 공경히 설치하고,
명부의 시왕전에 바치오니,

(저희들이) 망상심을 없애고
해탈 보리과를 원만하게 하소서.

我今敬設寶嚴座 普獻一切冥王衆 願滅塵勞忘想心 速圓解脫菩提果

‘옴 가마라 승하 스바하’

[도가영을 아뢰며 ‘저희 이제’에서 대중은 절을 함]

都歌詠
도 가 영

모든 성현 자비 바람 누구든지 좋아하나
명왕 원력 바다 갈아 끌을 알기 어렵다네.
다섯 신통 신속하여 헤아리기 어려우며
순식간에 인간 세계 분명하게 살피시니
저희 이제 공경히 절하옵니다.

諸聖慈風誰不好 冥王願海最難窮 五通神速尤難測 明察人間瞬息中 故我一心歸命頂禮

[정법계진언을 할 때 재자는 향을 올리고 차를 올린다. 다른 공양물은 사전에 진설해놓는다.]

欲建曼拏羅先誦淨法界眞言 ‘음 남’ [삼칠편]
욕 건 만 나 라 선 송 정 법 계 진 언

變食眞言
변 식 진 언

나막 살바 다타아다 바로기데

‘음 삼바라 삼바라 흠’ [삼칠편]

出生供養眞言 ‘음’ [삼칠편]
출 생 공 양 진 언

淨食眞言 ‘음 다가 바라 흠’ [삼칠편]
정 식 진 언

禮供
예 공

이 가지한 오묘한 공양구로

명부시왕 · 판관 · 귀왕 · 제위 권속님들께 공양합니다. [절]

以此加持妙供具 供養冥府十王等衆 以此加持妙供具 供養判官鬼王等衆

以此加持妙供具 供養諸位眷屬等衆

普供養眞言
보 공 양 진 언

‘옴 아아나 삼바바 바아라 후’ [삼편]

普廻向眞言
보 회 향 진 언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마나 사라마하 자거라바 흠’ [삼편]

[이곳에서 함합소를 아뢰는 것도 가능하나 고사단 권공 이후 함합소를 아뢰는 것으로 한다. 함합소를 아뢰면 다음 대각선으로 반을 잘라 재주에게 주고, 나머지는 봉송할 때 불살라 명부로 보냄]

[다음은 재승과 법석을 위해 초청 법사들이 입장하는데 이미 법사 스님들이 입장하였을 때는 대중을 향해 좌정한다. **법사 입장 및 좌차법**: 1번 증명은 중앙에 앉고, 2번 회수는 좌측 첫째 자리에, 3번 병법은 우측 첫째 자리에 앉으며, 4번 이하는 키 순서대로 입장하여 좌우로 가서 순서대로 앉는다. 재회를 진행하는 사회자·도감 법사는 9, 10번째 입장하며, 좌·우측 끝에서 중앙을 향해 의례를 진행한다.]

[**공양물 준비**, 초청 법사 스님의 숫자만큼 자리를 준비하고, 공양 올릴 거사[재자]를 지정한다. 공양 올릴 거사가 적을 때는 부득이 대표 법사 스님에게만 공양 올리고 의례 종료 후에 공양할 수도 있다.]

현전 승보 공양

[상단을 향한 법사 스님들이 이때 돌아 대중을 향해 좌정하면, 정표의 죽비 소리에 따라 당일 재주(齋主)와 도우미는 준비된 공양물을 법사 스님 자리마다 올리고 나서 세 걸음 뒤로 물러서 1배의 예를 올린다.]

법석: 경전 독송

[공양을 마치거나 상황 따라 정표가 요령을 한 번 갈아놓고 ‘정구업진언’ 하면 부표의 목탁에 따라 대중은 ‘옴 수리 수리 ~’ 하고 염송한다. 다음 정표가 다시 요령을 한 번 갈아놓고 ‘안위제신진언’ 하면 부표와 대중은 진언을 염송하는데 ‘나모 사만다 못다남’ 한 다음 “옴 도로도로 디미 스바하”만 삼편 한다. 다시 정표가 요령을 갈아놓고 개경계주를 하면 부표와 대중은 마찬가지로 개경계와 진언을 염송한 다음 바르게 앉아 금강경을 염송하기 시작한다. 도량 엄정 때 진행하였으므로 송경의식은 생략할 수도 있음]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으로 지혜 완성하는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천이백오십 명의 많은 비구들과 함께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셨습니다.

마침 공양 때라, 세존께서는 가사와 바루를 지니시고 탁발을 위해 사위성 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차례대로 탁발을 하시고 본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오셔서 공양을 마치고, 가사와 발우를 제자리에 내려놓고, 두 발을 씻으신 다음,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대중 속에 있던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에 옷을 벗어 매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공경히 합장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호
념하시며, 모든 보살들을 잘 부촉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깨달은 ‘위없고 바른 깨달음’을 구하려
는 마음을 낸 선남자선여인은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수행하
고 어떻게 마음을 조복 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옳도다, 옳도다. 수보리여, 그대가 말한 것과 같이 여래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호념하며 모든 보살들을 잘 부촉한다. 그대
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 그대를 위해 설할 것이다.

위없고 바른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을 낸 선남자선여인은
이와 같이 머무르고, 이와 같이 마음을 조복 받아야 한다.”

“예, 세존이시여” 하며 기쁘게 듣고자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마하살들은, ‘알에서 나는 것, 태에서 나는 것, 습기에서 나는 것, 화현하여 나는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인식작용이 있는 것, 인식작용이 없는 것, 인식작용이 있는 것도 인식작용이 없는 것도 아닌 것 등 일체 중생을, 나는 남음 없는 완전한 열반의 경지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셀 수 없고 한량없는 중생들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완전한 열반에 든 자는 참으로 없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조복 받아야 한다.

무슨 까닭이냐. 수보리여, 만일 보살에게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다시 또 수보리여, 보살은 경계인 법 경계에 머뭇이 없이 보

시한다.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며, 소리·향기·맛·촉감·마음의 대상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여 겉모양인 상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무슨 까닭이냐. 만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양을 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의 양을 잴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남·서·북방과 사유, 위·아래 지방의 일체 세계 허공의 양은 잴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상에 머뭇이 없이 보시하는 복덕 또한 이와 같이 그 양을 잦 수가 없나니, 수보리여, 보살은 오직 가르침과 같이 머물러야 한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32상이 갖춰진 몸매로써 여래를 볼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매로는 여래를 볼 수 없습니다. 무슨 까닭이리까. 여래께서 설하신 몸매라는 것은 곧 몸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몸매라 하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다. 만일 32상이 갖춰진 제상과 32상이 없는 비상을 바로 보면 여래를 볼 수 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 존이시여, 미래 정법이 쇠퇴할 때 이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 진실한 믿음을 일으키는 증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여래가 멸한 뒤 후오백세에도, 이 법문에 잘 믿는 마음을 낼 것이며, 이를 진실한 것으로 삼아 계율을 지키며 복을 닦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알지니, 이 사람은 한 붓다, 두 붓다, 서너 다섯 붓다께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붓다의 자리에 온갖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법문을 듣는 즉시 오직 일념으로 깨끗한 믿음을 내는 자들이다.

수보리여, 여래는 이 모든 증생이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쌓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무슨 까닭이냐. 이 모든 증생은 다시는 아상 인상 증생상 수자상이 없을 것이며, 법의 상도 없으며, 또한 법의 상이 아니라 는 생각조차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이냐. 이 모든 증생이 만일 마음에 상이 일어난다면 아상 인상 증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법의 상이 일어나도 아상 인상 증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무슨 까닭이냐. 만일 법이 아니라고 하는 상이 생겨난다면 그것도 아상 인상 증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땅히 법을 취해서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을 취해서도 안 되

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에서 여래는 언제나 ‘나의 법문이 뗏목의 비유와 같다는 것을 아는 그대 비구들은, 법도 응당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들이라!’라고 설하였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위 없고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느냐? 여래에게 설해진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위 없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말해질 법이 없으며, 또한 여래에 의해 설해졌다고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무슨 까닭이리까. 여래에 의해 설해진 법은, 모두 잡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이며, 법도 아니요, 법이 아님도 아

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까닭이리까. 일체 성현들은 다 무위법으로써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철보를 가득 채워 이것으로써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쌓게 되는 복덕이 많다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리까. 이 복덕은 곧 복덕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입니다. 그러므로 복덕이 많다고 여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다시 이 범문 가운데 단지 사구계라도 배워 남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복은 앞의 사람이 지은 복덕을 뛰

어념을 것이다.

무슨 까닭이냐. 수보리여, 일체 붓다와 모든 붓다의 위 없고 바른 깨달음이라는 법이 모두 이 상을 타파하라는 법문에서부터 생겨났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불법이라고 말해지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자의 흐름에 든 수다원이 ‘나는 예류과를 증득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오리까.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 말해지지만, 그는 들지 않았으며, 형상 소리 향기 맛 촉감 마음의 어떤 대상에도 든 적이 없으므로 수다원이라 말해지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번만 더 돌아올 사다함이 ‘나는 일래과를 증득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리까. 사다함은 ‘한 번만 더 돌아올 자’라 말해지지만, 참으로 한 번만 갔다 왔다는 것이 없으므로 사다함이라 말해지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아나함이 ‘나는 불환과를 증득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리까. 아나함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자’라 말해지나, 참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나함이라 말해지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과를 증득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리까. 아라한이라고 말해질 법이 참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과를 증득했다’는 생각을 한다면 ‘아인 중생수자’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서는, 제가 다름 없는 삼매에 머무는 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과를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욕망을 여윈 제일 아라한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는 욕망을 여윈 아라한이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일 ‘나는 아라한과를 증득

했다’는 생각을 한다면, 세존께서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좋아하는 자이다, 수보리는 참으로 끌림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좋아한다고 말해질 수 있다’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과거 연등불 회상에 있을 때, 법에 대하여 깨달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연등불 회상에 계실 때, 법에 대하여 참으로 깨달은 것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리까. 불국토를 장엄한

다는 것은 장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엄한다고 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마하살은 이같이 머뭇이 없는 맑고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어떤 형상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향기 맛 촉감 마음의 대상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한다. 어떤 것에도 머뭇이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수보리여, 비유하건대 몸이 수미산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몸이 크다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매우 큼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리까. 부처님께서서는 ‘몸은 몸이 아니다, 그래서 큰 몸이라 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 설하셨습니다.”

“수보리여, 항하 강의 모래알 수와 같은 강가 강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강가 강의 모래 숫자가 참으로 많다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모든 강가 강만 하여도 너무 많아 셀 수 없거늘, 하물며 모래의 숫자이겠습니까?”

“수보리여, 내 이제 그대에게 분명히 말하리라. 만일 칠보를 이곳 강가 강의 모래 숫자만큼의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워 그것으로 보시하는 선남자선여인이 있다면, 쌓게 되는 복덕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매우 많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선남자선여인이 이 법문에서 사구계만이라도 배워 마음에 간직하여 남에게 자세히 설명해 준다면, 이로 인해 쌓게 되는 복덕은 앞에서 말한 복덕을 뛰어넘을 것이다.

다시 또, 수보리여, 이 법문이나 사구계만이라도 설한다면, 바로 그곳이 일체 세간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가 모두 기꺼이 공양하는 부처님의 묘탑과 같은 곳이 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 법문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는 사람임에
라.

수보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제일 희유한 법을 성취할 것이며, 이 경전이 있는, 설해지는 곳이 바로 붓다가 머무는 곳이

되며, 존경받는 붓다의 제자들이 머무는 곳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보리여, 만일 셀 수 없는 아승기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하는 사람이 있고, 만일 또 이 경전의 네 구절 계송이라도 마음에 간직하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는 보살의 마음을 낸 선남자선여인이 있다면, 이로 인해 쌓게 되는 복덕은 앞의 복덕을 뛰어넘을 것이다. 어떻게 남들을 위하여 설명해 줄 것이냐. 상을 취하지 않으며 여여하여 상에 끌리지 않아야 한다. 무슨 까닭이냐.

형성된 것은 참으로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
이때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법문은 무엇이라 이름합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면 되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문은 금강반야바라밀이라 이름할 수 있다. 이 이름으로써 그대들은 마음속에 간직하여라.”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설하시자, 장로 수보리와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들과 일체 세간의 천·인과 아수라 등이 붓다님의 법문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확신을 가지고 수행하였습니다.

[경전 독송이 끝나면 36쪽 보결진언, 반야무진장진언, 지장보살 탄백을 하고 화청 회심곡 축원을 한다.]

금강반야바라밀경찬 [금강경 염송하지 않을 때는 찬으로 대체한다]
 金剛般若波羅蜜經纂

여시아문 선남자선녀인 수지독송차경찬일권 여전금강경 삼
 如是我聞 善男子善女人 受持讀誦此經纂一卷 如轉金剛經三
 십만편 우득신명가피 증성제휴 국건대력칠년 비산현령 유씨
 十萬遍 又得神明加被 衆聖提攜 國建大曆七年 毘山縣令 劉氏
 여자연일십구세신망 지칠일 득견엄라대왕문왈 일생이래작
 女子年一十九歲身亡 至七日 得見閻羅大王 問曰 一生已來作
 하인연 여자답왈 일생이래편지득금강경 우문왈 하불염금강
 何因緣 女子答曰 一生已來 偏持得金剛經 又問曰 何不念金剛
 경찬 여자답왈 연세상무본 왕왈 방여환활 분명기취 경문종여
 經纂 女子答曰 緣世上無本 王曰 放汝還活 分明記取 經文從如
 시아문 지신수봉행 도계 오천일백사십구자 육십구불 오십일
 是我聞 至信受奉行 都計 五千一百四十九字 六十九佛 五十一
 세존 팔십오여래 삼십칠보살 일백삼십팔수보리 이십육선남
 世尊 八十五如來 三十七菩薩 一百三十八須菩提 二十六善男
 자선녀인 삼십팔하이고 삼십육중생 삼십일어의운하 삼십여
 子善女人 三十八何以故 三十六衆生 三十一於意云何 三十如

시 이십구아록다라삼막삼보리 이십일보시 십팔복덕 일십삼
 是 二十 九 阿 耨 多 羅 三 藐 三 菩 提 二 十 一 布 施 十 八 福 德 一 十 三
 항하사 십이미진 칠개삼천대천세계 칠개삼십이상 팔공덕 팔
 恒 河 沙 十 二 微 塵 七 箇 三 千 大 千 世 界 七 箇 三 十 二 相 八 功 德 八
 장엄 오바라밀 사수다원 사사다함 사아나함 사아라한 차시
 莊 嚴 五 波 羅 蜜 四 須 陀 垣 四 斯 陀 舍 四 阿 那 舍 四 阿 羅 漢 此 是
 사과선인 여아석위가리왕 할절신체 여아왕석 절절지해시 약
 四 果 僊 人 如 我 昔 爲 歌 利 王 割 截 身 體 如 我 往 昔 節 節 支 解 時 若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일일 무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有 我 相 人 相 衆 生 相 壽 者 相 一 一 無 我 見 人 見 衆 生 見 壽 者 見
 삼비구니 수내 칠사구계
 三 比 丘 尼 數 內 七 四 句 偈

보궐진언 ‘음 호로호로 사야모계 스바하’

반야무진장진언

나모 바가바떼 브라가 빠라미따예

‘음 이리띠 이실리 슈로다 비샤야 비샤야 스바하’

금강심진언

‘옴 오륜이 스바하’

和請 [회심곡 생략할 수도 있음]
화 청

명부의 십대왕과 권속이시여,
모 씨 보체를 연민이 여겨 보호하시고
[중화] 현생에는 복과 수명 늘어나고
내생에는 정토에 나게 하소서.

冥府十王與眷屬 某氏 寶體 哀愍覆護 [衆和] 現增福壽 當生淨刹

[시왕봉송: 재주가 시왕도위패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서 재자와 대중은 절하며 봉송하거나 향로에서 살라 봉송한다. 대중이 다시 법당으로 돌아와서 회향진언을 염송하고 축하를 하며 다과를 나눈다. 상황에 따라 영반과 전시식을 마친 다음에 할 수도 있다.]

보회향진언 [정표]
普廻向眞言

‘옴 사마라 사마라 미마나 사라마하 자가라바 흠’ [삼편]

[공양이 끝나면 대표 법사 스님이 축원을 하고, 마치면 전 대중이 공양을 한다.]

祝願 [정표]
축원

삼보님께 아뢰오니,
금일 생칠재 재주가
불보살님의 가피력 입어
일체 재앙 사라지고, 집안이 화평하며,
재수가 대통하고, 원하는 일 성취되며,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며,
선망 조상님들은 왕생극락이 이뤄지이다.

[대취] 나모서가모니불 [삼취]

고사권공

庫 司 勸 供

[고사단(庫司壇)의 고사는 예수재를 지내는 재자가 명부 시왕에게 갚는 빛을 관리하는 금고를 지키는 사령이다. 이들은 육십갑자의 금고를 관리하므로 고사는 60명이다. 가령 갑자생은 원(元) 씨이고, 을축생은 전(田) 씨라는 식이다. 각 육십갑 연생의 빛은 다른데 갑자생은 오만삼천관이고 간경(看經, 봐야 할 경전)은 17권이라는 식이다. 고사단은 한 명의 고사를 그림으로 모셔놓고 진행하지만 근래에 60고사 모두를 그림으로 그려 모셔놓고 고사단 의식을 하는 예수재를 볼 수도 있다. 60고사를 한꺼번에 청해서 상단의 삼보와 중단의 명부시왕 전에 예를 올리게 하고 자리에 앉힌 다음 차를 올리며, 예수재에 청할 모든 성현과 고사를 청하게 된다. 독관으로 행할 때는 재자의 소속 고사를 청한다. 전통 의식에 의하면 미시(오후 2시)가 되면 전막을 옮겨 상 시왕과 권속을 나눈다. 중단권공의 회향주 끝에 고사단으로 물러 드린다. 그것을 드리면서 아뢰다. 예수자 본문은 그곳에 실렸으므로 이곳에 기재한다. 전중 7추를 하고 나발 세마지를 분다. 바라를 한 중 올린다. 고사단은 좌측에 설치한다. 좌측 단 거불은 '나모붓다야 나모달마야 나모승가야'

● 擧佛(거불, 요령·목탁)

나모붓다야 [절]
南 無 佛 陀 耶

나모달마야 [절]
南 無 達 摩 耶

나모승가야 [절]
南 無 僧 伽 耶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고사(庫司) 판관(判官)들의 신령한 기미는 헤아릴 수 없고, 미묘한 지혜 또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위로는 명부 세계에 바칠 돈과 재물을 받들고, 아래로는 인간의 수명을 밝히며 출납하고 취해 주는 일에 털끝만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명부에서 쓸 돈과 재물을 엄숙하게 진열해 놓고 지극한 마음과 간절한 뜻으로 공양을 올리오니, 각각 기쁜 마음을 내시어 법회 자리에 마련한 단상(壇上)으로 오시옵소서.

위풍이 넘침하고 영감(靈鑑)이 밝게 드러나 인간 세계의 진실과 거짓,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살피는 본명(本命)의 원신(元神)인 열국 제조(諸曹)의 제 [모 고(庫)의 조관(曹官) 아무] 사군(司君)과 각각 그들을 따르는 권속들이시여, 삼보의 힘을 받들어 도량에 강림하여 공양을 받으소서.

●보례삼보(고사 위패가 도량에 입장하여 중앙에 서서 삼보에 예를 올림)

‘위없는 삼보님께 절하옵니다. [위패가 삼보에 절함]

○受位安座(수위안좌, 예를 마치고 고사단에 돌아와 위패를 받아 고사단에 안치)

수위안좌진언 (위패를 받아 자리에 앉히는 진언, 요령)
受位安座眞言

‘옴 가마라 승가 스바하’ [삼편]

○勸供(권공, 고사에 공양을 올림)

정법계진언 (법계를 정화하는 진언, 요령)
淨法界眞言

‘옴 람’ [삼칠편]

향긋한 공양은 재자의 정성입니다. 공양이 원만해지려면
가지의 변화에 의지해야 하오니 삼보님, 가지를 내리소서.

‘나모불 나모법 나모승’

無量威德 自在光明勝妙力 變食眞言 [공양물이 변화되는 진언]
무 량 위 덕 자 재 광 명 승 묘 력 변 식 진 언

나막 살바 다라아다 바로기데

‘옴 삼마라 삼마라 흠’ [칠편]

이 가지 공양을 제 [아무 고(庫)의 조관(曹官) 아무] 사군(司君)과
각각 그들을 따르는 권속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普供養眞言
보 공 양 진 언

옴 아아나 삼바바 바아라 혹 [삼편]

普回向眞言
보 회 향 진 언

옴 사마라 사마라 미마나 사라마하 자거라바 흠 [삼편]

함합소

[함합소는 예수재를 지냈다는 증명서를 봉함한다는 뜻인데, 반을 잘라 반은 재자가 갖고 반은 고사 편에 명부로 보내 사후에 자른 반을 합해서 확인한다는 의미를 지낸 행위라고 할 수 있음]

사바세계 모처에 거주하는 재자 아무개는 현재 세상에서는 복과 수명이 늘어나고, 미래 세계에는 정토세계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며, 모산 모사에서 금월 모일 미리 시왕전에 살아서 칠칠재를 닦기 위해, 삼가 법을 집행하는 사리(閻梨) 한 분과 법을 집행하는 스님에게, 하루 동안 번기를 걸어 휘날리고 편지를 써서 보내며 결제하여 단을 세우고 법식에 맞추어 명부에 빛진 수생전(壽生錢)을 엄숙하게 준비하고 향과 꽃,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마련하여 진열하고 상단에는 시방 성현의 높은 분과, 시왕과 명부의 여러 관리에 이르기까지 법식(法食)을 널리

차려놓고 온갖 향과 꽃을 갖추어서 날날이 받들어 바치고 공양하여주시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제 모씨 모생 재자는 일찍이 모 창고 모 사군(司君) 전에 사람의 몸을 받게 되었을 때 빛진 명부의 돈 몇 관과 금강경 몇 권을 본명을 담당하고 있는 성종의 본 창고에 바치고 인간으로 태어나 가난하고 부유하며 귀하고 천함과 수명의 길고 짧음과 고달프고 즐거움에 대하여 각각 분수에 맞는 것을 얻어 스스로 잘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부에 빛진 돈 몇 관과 경전 몇 권을 본명에 맞게 갖추어 모 창고 모 사군 앞에 환납(還納)하오니, 받아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다만 제가 힘이 없어 그 수효를 다 준비하지 못하였으나 붓다의 가지 법에 의지하여 금은(金銀) 지전이 변화되어 한량없이 많아지고, 하나와 많음이 결림 없고 사물과 이치가

서로 응화하여 찰해(刹海) 안에 가득해지기를 바라오며,
저도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의 법력(法力)으로 모두를 다 갖추
었으니, 성총께서는 밝게 살피시어 받아주시옵소서.
편지를 써서 봉합한 이가 삼가 소문을 아뢰입니다.

년 월 일 병법사문 암^[사인]

신마권공

神馬勸供

[신마(神馬)는 명부시왕에 소속된 신력이 있는 말로 명부 시왕에 바치는 금은전을 옮겨가는 역할을 맡은 분들이다. 신마가 십필인 것은 명부왕이 열 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신마는 사자단의 신마가 아니고 명부시왕 소속의 신마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신진언도 이칠편 염송한다. 시왕에 소속된 고사가 60분인 것은 재자가 육십갑생이기 때문인 것과 다르다. 예수재는 기본적으로 독판으로 설관해야 하는 이유가 생년에 따라 갚아야 할 빛이 다르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가 60인인 것이다. 그래서 재자에 따라 그에 맞는 고사를 청해야 한다. 60분의 고사는 뒤의 부록에 실려 있는데, 전통의 고사를 18세기 한국의 유명 성씨로 새로 모셨다. 십이생상속은 전통의 원칙을 존중하되 생칠재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신마는 해탈문 밖 오른편에 설치한다. 우측 단이라 거불은 '나모시방불 나모시방법 나모시방승'이다.]

● 擧佛(거불, 요령·목탁)

나모시방불 [절]
南 無 十 方 佛

나모시방법 [절]
南 無 十 方 法

나모시방승 [절]
南 無 十 方 僧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재자의 흠전을 명부왕님께 바치려면 신
마에 의지하지 않고는 도리가 없습니다.

신마여, 이곳에 오셔서 저희 공양 받으시고, 저희의 속세의
빛인 흠전과 함합소를 명부에 전해 주소서.

○勸供(권공, 고사에 공양을 올림)

정법계진언 (법계를 정화하는 진언, 요령)
淨法界眞言

‘음 람’ [삼칠편]

운심공양계주 [마음으로 공양 올리는 계송과 진언]
運心供養偈呪

이 청정하고 오묘한 향찬을,
유명계의 신마께 공양합니다.
큰 인연 있는 오묘한 공양 받으시고

속히 본취를 떠나 선도에 태어나소서.

나막 살바 다타아데박 미새바모제박 살바다캄 오나아데 빠라
혜맘 ‘옴 아아나감 스바하’ [삼설]

普供養眞言
보 공 양 진 언

옴 아아나 삼바바 바아라 후 [삼편]

普回向眞言
보 회 향 진 언

옴 사마라 사마라 미마나 사라마하 자거라바 흠 [삼편]

歸依佛 歸依法 歸依僧 [삼설, 이하 봉송을 위해 태울 때 염송]
귀 의 불 귀 의 법 귀 의 승

奉送眞言
봉 송 진 언

옴 바아라 사다 목차목 [삼편]

통용진전식

通用進奠式

[전(奠)은 제수를 말하며 제수를 올려 제사 지내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칠칠제나 기일제사 등에 활용하며, 시식을 함께할 때는 헌식규를 하거나 관음시식을 원용한다. 영단에 위패와 제수를 진설하고 법사 대중과 재주가 함께 진행한다. 정표는 법당 밖에서 전시식(헌식규)을 진행하고, 부표는 영단에서 조상을 위해 영반(靈飯)을 진행한다.]

● 擧佛(거불, 요령·목탁)

나모아미타불 [절]
南 無 阿 彌 陀 佛

나모관세음보살 [절]
南 無 觀 世 音 菩 薩

나모대세지보살 [절]
南 無 大 勢 至 菩 薩

보소청진언 [널리 청하는 진언]
普 召 請 眞 言

‘나모 보보데리 가리다리 다타아다야’ [삼편]

●唱魂(창혼: 법주 요령 3번 내리고 조금 있다가 합장하고 부름)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섬부주 해동 대한민국 모처 거주
모인의 조상 혼령이여’, [재설]

“今次 娑婆世界 此四天下 南瞻部洲 海東 大韓民國 ○○居住 某人 ‘先亡祖上魂靈’” [요령내림]

○受位安座(수위안좌, 위패를 받아 영단에 안치한다)

수위안좌진언 (위패를 받아 자리에 앉히는 진언, 요령)
受位安座眞言

‘옴 마니 굶다리 흠 흠 스바하’ [삼편]

○著語(착어)

[모인 혼령이여] 쓸쓸하고 고요하며 맑고 텅 비었으니 멀리서나마 이
금탁(金鐸)의 맑은 소리를 듣고 속히 하늘같이 높은 난야(蘭若: 절)에
이르소서. 그리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자리에 편히 앉아 저의
이 법의 음식 받고 단박에 무생을 깨달으소서.

(某靈) 蕭然空寂 湛爾冲虛 遠聞金鐸之清音 速赴雲霄之蘭若 攝心安座 受我法食 頓悟無生

[다음 구문은 상황 따라 생각할 수도 있음]

[아무 혼령이여, 향로 속에 몇 개비 향을 사르니 향냄새 온 법계에 두루 퍼져서 시방의 하늘에 가득하고, 단 위에 한 점의 등불을 돋우니 그 불빛 여섯 갈래 세계에 사무쳐서 어두운 거리를 비추어 어두움을 깨뜨리나이다. 오직 이 한 상의 맛좋은 음식은 바로 세 가지 덕의 미묘한 작용이니 그 본체를 논하면 그 본체가 항하강 모래알처럼 두루 퍼져 있고, 그 모습을 말하면 그 모습은 법계에 두루 퍼져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듣기만 하고 보지 않아도 오히려 배고픈 괴로움을 면할 수 있고, 보기만 하고 먹지 않아도 오히려 선열(禪悅)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수저를 높이 들고 직접 법의 맛을 맛보는 것이겠습니까?

[某靈] 數枝香爇爐中 周徧法界 而方盈十虛 一點燈挑壇上 光通六途 而照破昏衢 唯此一床之珍羞 乃是三德之妙用 論其體則 體徧河沙 語其相則相周法界 是故聞而不見 尙免飢虛爲苦 見而不食 猶得禪悅之樂 而況高提匙筋 親嘗法味者也

[아무 혼령이여, 신비한 지혜는 밝고 밝으니,
이 음식에 구부러 흠향(歆饗)하소서.

“(某靈) 神智昭然 俯歆斯奠”

○進飯(진반, 제수를 올림, 법주 요령 3하 후 합장하고 낭독)

상래 소청 제 혼령 위에서 청한 여러 조상 혼령이여,
上 來 召 請 諸 魂 靈

[향] 다섯 가지 진리 향을 사르오니, 큰 깨달음 얻으소서.

[香] 熱五分之眞香 熏發大智

[등] 반야의 밝은 등을 밝히니, 명도의 어두운 길 밝히소서.

[燈] 燃般若之明燈 照破昏衢

[다] 조주의 맑은 차 올리오니, 단박에 목마름을 면하소서.

[茶] 獻趙州之清茶 頓息渴情

[차] 신세계의 진품 과일 올리오니, 항상 한 맛을 도우소서.

[果] 獻仙都之眞品。常助一味

[식] 향적세계 진수를 올리오니, 영원히 배고픔을 면하소서.

[食] 進香積之玲羞 永絕飢虛

금일 제령 [정표 요령, 내림]
今日 諸靈

조상님이시여,
이곳에 차린 갖가지 진수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도
땅에서 대충 솟은 것도 아니라
후손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훈령님 앞에 나열하였으니 흠향하소서.

某靈 於此物物 種種珍羞 不從天降 非從地聳

但從弟子之一片 誠心流出 羅列靈前 伏唯尙饗 [요령 내림]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대중과 함께, 송주성)
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지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으며,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으며,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 뒤바뀐 헛된 생각을 아주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붓다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아뇩다라삼막삼보리를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데아데 바라아데 바라승아데 모디 스바하’ [삼편]

보공양진언 (넬리 공양 올리는 진언, 정표)
普 供 養 眞 言

‘옴 아아나 삼바바 바아라 후’ [삼편]

[자손들은 상주삼보에 지심귀명례의 삼배를 한 후 조상님들이 배불리 드시는 것을 생각한다.]

보회향진언 (널리 회향하는 진언, 정표)
普 回 向 眞 言

‘옴 사마라 사마라 미마나 사라 마하 자가라바 흠’ [삼편]

○讚飯偈(찬반게, 다 같이 요령·목탁)

저희 올린 법다운 공양
아난의 공양과 다름없으니,
시장한 이는 다 배부르고
업의 불길 꺼져 시원해지며
탐진치 모진 독을 다 버리고
항상 삼보께 귀의하고
언제나 보리심 내면,
있는 그곳이 안락국입니다.

受我此法食 何異阿難饌 飢腸咸飽滿 業火頓清涼 頓捨貪嗔癡 常歸佛法僧 念念菩提心 處處安樂國

[제사를 마치고 시식을 하고자 하면 밖으로 나와 헌식대에서 아래 헌식규로 봉행하면 좋을 것이다.]

헌 식 규 獻 食 規

['변식규'라고도 한다. 재 후 먹지 못한 무주고혼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절차, 하단시식 때 여러 가지 올린 전물을 조금씩 거둬 법당 밖 헌식대에 올리고 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제수를 진설하고 할 수도 있다. 정표가 가볍게 세 번 탄지를 하고 “제불자 혼령이여,” 하고 창흔을 하고 시작한다]

정법계진언 ‘옴 람’ [삼찰편] 淨 法 界 眞 言

[법주가 정법계진언 ‘옴 람’을 외우면 증명은 오른손 무명지를 펴서 ‘옴 람’ 두 자를 공중에 그리고, ‘옴’자의 광명이 법계에 두루 하여 구릉이나 구덩이 평탄하여 걸림이 없이 (그곳에 있는 일체 유정 모두가) 다 청량해진다고 생각한다.]

‘람’자 광명 일체 법계에 두루 하여
모두 청량을 얻어지이다.

喃字光明 遍照法界 丘陵坑坎 平坦無礙 皆得清涼

법력은 생각하기 어렵고 대비는 장애가 없으니
알알이 시방에 두루 하여 널리 법계에 두루 하고

法力難思議 大悲無障礙 粒粒遍十方 普施周法界

이제 이 쌓은 복으로, 널리 귀신들에게 적셔 주니,
드시면 고통을 면하고, 몸 버리고 극락에 납니다.

今以所修福 普霑於鬼趣 食已免極苦 捨身生樂處

○變供儀式(사다라니 음자 이하 각 칠 편을 염송)

변식진언 (한량없는 음식으로 변화하게 하는 진언)
變 食 眞 言

나막 살바 다타아다 바로기데 ‘옴 삼바라 삼바라 흠’

[다음 변식진언을 외울 때, 증명법사는 위에서와 같이 한다. ‘옴 람’ 두 자를 공양구 위에 쓰고, ‘람’자의 위신으로 한 그릇이 셀 수 없는 그릇으로 변화되고 한 알의 곡식이 무량한 곡식으로 변화되어 그릇 그릇이 다 이와 같고 알알의 곡식이 다 이와 같이 되어 법계에 가득 채워지게 된다고 생각한다.]

시감로수진언 (감로수를 드리는 진언)
施 甘 露 水 眞 言

나모 소로바야 다타아다야 다냐타

‘옴 소로소로 바라소로 바라소로 스바하’

[감로수진언을 외울 때, 곧 왼손으로써 물그릇을 잡고 오른손으로 향 연기의 훈기를 씌운 양지(버드나무가지)를 잡고 물그릇에 세 번 담갔다 한다.]

일자수륜관진언 (수륜을 관하는 일자 진언) 一字水輪觀真言

‘옴 밤 밤 밤 밤’

[수륜관진언을 외을 때 이 양지로써 ‘옴 람’ 두 자를 물그릇 위에 쓰고 그 물을 세 번 휘 저어 향연기가 물과 합해지게 하고, ‘람’자의 위력과 신력으로 향해(香海)의 묘수(妙水: 좋은 물)가 유출되어 (그것을) 공중에 두루 뿌린다.]

유해진언 (한량없는 공양이 베풀어지는 진언) 乳海眞言

나모 사만다 못다남 ‘옴 밤’

[유해진언을 외을 때, 이 양지로써 향수를 공양구 위에 뿌리고 공중에 세 번 뿌린다. 또 세 번을 끝내고 가슴에 합장하고 조금 물러나 다섯 진언을 마치고 자리에 나아간다.]

○稱揚聖號(칭양성호: 요령·목탁)

나무다보여래 [재칭]

고훈들은 탐심이 없어지고 보배 재물 갖춰집니다.

南無多寶如來 願諸孤魂 破除慳貪 法財具足

나무묘색신여래 [재칭]

고혼들은 추한 몸 벗고 원만한 몸매 이뤄집니다.

南無妙色身如來 願諸孤魂 離醜陋形 相好圓滿

나무광박신여래 [재칭]

고혼들은 목구멍 넓어지고 배고픔을 면합니다.

南無廣博身如來 願諸孤魂 咽喉寬大 免飢虛報

나무이포외여래 [재칭]

고혼들은 두려움 떨치고 열반락을 누립니다.

南無離怖畏如來 願諸孤魂 離諸怖畏 得涅槃樂

나무감로왕여래 [재칭]

제령들은 바늘 같은 목구멍을 면하고 감로수를 얻습니다.

南無甘露王如來 願諸孤魂 免針咽報 得甘露味

● 施食偈(시식계)

이 가지 공양이 시방세계 두루 하여,
드신 이는 굶주림 없애고 왕생극락하소서.

願此加持食 普遍滿十方 食者除飢渴 得生安養國

시귀식진언 (귀중에게 음식을 베푸는 진언)
施 鬼 食 眞 言

‘옴 미기 미기 야야 미기 스바하’ [삼편]

보공양진언 (널리 공양하게 하는 진언)
普 供 養 眞 言

‘옴 아아나 삼바바 바아라 후’ [삼편]

[사방에 감로수를 뿌린다.]

혼령들이여, 붓다의 진언으로 변화된 감로수
한 방울을 적시게 되면 모든 고통 벗어납니다.

列名魂靈 願我所呪水 變作甘露味 一滴之所沾 衆魂皆離苦

[회향진언을 염송하고 반야심경을 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다.]

[이상 시왕권공과 영반, 전시식 등을 모두 마치면, 상위에서는 법사 스님들에게 법당에서 공양을 올리고, 하위의 일가친척과 동네 사람들 거사들은 재당(齋堂, 식당, 공양간)이나 마당에서 공양을 나누는 것이 적합하나 현실적으로 봉송을 마치고 대중공양하는 것으로 한다.]

[공양을 모두 마치면 정표는 장을 올려 봉송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린다.]

[봉송의식의 시작은 법당 앞 끝에서 지전을 살아 명부전으로 환전하는 화재수용[化財受容]의식을 먼저 한 다음, 소대로 나아가 번 등을 살아 소산(燒散)하고 대웅전 앞으로 돌아와 삼회향으로 생칠재를 마친다.]

●奉送儀式(봉송의식)

봉송의식의 시작은 지전 등을 저승의 명부전으로 교환하는 화재수용으로 시작한다.

○換錢儀式(환전의식, 化財受用)

제불의神通력으로 저승의 재물로 되고
법계에 두루 퍼져 한 재물이 많은 재물 되어
널리 명부에 올려져 써도 다함이 없습니다.

願諸佛以神通力 加持冥財遍法界 願此一財化多財 普施冥府用無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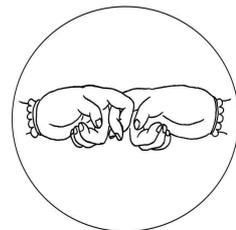
나모 사만다 못다남 ‘옴 바자나 비로기데 스바하’

[위 진언을 금은산이 탈 때까지 무수히 염송하는데, 금은전산의 돈이 명부의 돈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상중하의 위판과 화병과 등축을 마당으로 내려와 소대로 가서 봉송의식을 한다. 봉송진언 3편

을 하고, 불번과 오여래 및 삼단 화변과 위목 등 물건 일체를 불사르고 구를 외운 다음 정문으로 들어가서 삼회향을 한다.]

○奉送偈(봉송계)

명부의 시왕 권속들과
제령 고힌 유정들을 보내옵니다.
시왕이여, 다음에 도량을 열면
본서를 잊지 말고 다시 오소서.



奉送冥府十王衆 諸靈孤魂有情等 我於他日建道場 不違本誓還來赴

‘옴 바아라 목사목’ [삼편]

[상황에 따라 전통 의식으로 봉행할 수도 있다. 아미타불을 염불하며 문밖으로 나와 연 양쪽을 따라 봉송 소로 가서 염불을 마친다.]¹⁾

1) 『범음산보집』(HD11, 475중하); 『산보범음집』(KR2, 601상).

○廻向儀式(회향의식, 계수계²⁾)

세계에 거처하나 걸림 없는 허공같이
연꽃에 물이 머물지 않듯이 마음이 청정해 저곳으로 넘어가
무상존께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處世界如虛空 如蓮華不著水 心清淨超於彼 稽首禮無上尊

보회향진언 (널리 회향하는 진언)
普 回 向 眞 言

‘옴 사마라 사마라 미마나 사라 마하 자가라바 흠’ [삼편]

[대웅전 앞에서 불전을 삼회향한다.]

南無歡喜藏摩尼寶積佛 [반배]
나 무 환 희 장 마 니 보 적 불

南無圓滿藏菩薩摩訶薩 [반배]
나 무 원 만 장 보 살 마 하 살

南無廻向藏菩薩摩訶薩 [반배]
나 무 회 향 장 보 살 마 하 살

2) 『결수문』에는 별도의 회향편을 시설하지 않았으나, 이곳에서부터 회향의식이 시작된다.

生前七齋[生七齋] 設辦 費用 定度

여법한 생칠재를 위해 재주는 최소 10인의 법사 스님을 청해 공양을 올리는데 현재의 최소 물가를 감안 최소 1천만원 정도의 재비를 준비한다. 최소 법사 십인을 청하는 것은 명부시왕과 십악을 멈추고 십선을 행하는 것을 상징하므로, 십인(十人)의 법사를 초청하여 공덕을 지어 금생에는 수명장원을, 내생에는 왕생 극락을 이루고자 하는 의례가 생전칠재[생칠재]이다.

설판 1천만 원

법사공양 1인당 30만원 8인, 240만원, 어산 법사 2인 140만원

공양비용 300만원에 해당하는 재청 인원을 정한다.

시왕위패와 금은전을 준비한다.

설판 2천만원

법사 공양 30만원 16인, 어산 법사 2인 140만원

공양비용 600만원에 해당하는 재청 인원을 정한다.

시왕위패와 금은전을 준비하고 약간의 작법무를 준비한다.

설판 3천만원

법사 공양 30만원 20인 어산 법사 4인 280만원

공양비용 900만원에 해당하는 재청 인원을 정한다.

시왕위패와 금은전을 준비하고 고사단과 마구단을 설단하고 약간의 작법무를 준비한다.

설판 1억원 이상은 그에 상응하는 제반 준비와 재청을 정하고, 가무단 등을 청하여 전통식으로 위무한다.

十王都位牌書記法 “冥府當齋王與大王及眷屬衆” 辛卯生の 당재왕은 초강대왕이므로 “冥府初江王與大王及眷屬衆”이라고 최소 1자 반의 높이로 써서 모시는데, 다음 십재일 표를 참고한다.

십재일표

十齋日	主願佛	十王	地獄名號	主誕日	六甲
初一日	定光佛	秦廣	刀山獄	二月初一日	庚午 辛未 壬申 癸酉 甲戌 乙亥
初八日	藥師佛	初江	鑊湯	三月初一日	戊子 己丑 庚寅 辛卯 壬辰 癸巳
十四日	賢劫千佛	宋帝	寒冰	二月廿八日	壬午 癸未 甲申 乙酉 丙戌 丁亥
十五日	阿彌陀佛	五觀	釘樹	五月初八日	甲子 乙丑 丙寅 丁卯 戊辰 己巳
十八日	地藏菩薩	閻羅	拔舌	三月初八日	庚子 辛丑 壬寅 癸卯 甲辰 乙巳
廿三日	大勢至菩薩	變成	毒蛇	二月廿七日	丙子 丁丑 戊寅 己卯 庚辰 辛巳
廿四日	觀世音菩薩	泰山	剉碓	三月初七日	甲午 乙未 丙申 丁酉 戊戌 己亥
廿八日	盧舍那佛	平等	鉅鮮	四月初一日	丙午 丁未 戊申 己酉 庚戌 辛亥
廿九日	藥王菩薩	都市	鐵床	四月初七日	壬子 癸丑 甲寅 乙卯 丙辰 丁巳
卅日	釋迦佛	轉輪	黑暗	四月廿七日	戊午 己未 庚申 辛酉 壬戌 癸亥

十齋日頌

一定八藥十四賢 十五彌陀八地藏 二十三四大觀音 八盧九王晦釋迦

十齋日每佛號千念式不墮此獄，十王誕日供養則離苦趣也。每月此日 天行賢聖 察人善惡 結集罪福之日 依此行者 消罪恒沙 功德難量 永无灾障 速成正覺

십재일의 부처님 명호를 천념하면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시왕 탄생일에 공양하면 고치를 떠난다. 매일 이날은 천신들이 현성에게로 가서 사람들의 선악을 살펴 죄와 복을 결집하는 날이다. 이에 의지하여 행하면 죄를 멸한 것이 향하사 같고 공덕은 셀 수 없으며 영원히 장애가 없고 속히 정각을 이룬다.

명부 시왕의 의미

- | | |
|-----------------------------|--------------------------|
| 제1전 진광대왕 일체 생명을 괴롭히지 않는다. | 제2전 초강대왕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 |
| 제3전 송제대왕 그릇된 이성 관계를 갖지 않는다. | 제4전 오관대왕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
| 제5전 염라대왕 꾸민 말을 하지 않는다. | 제6전 변성대왕 모진 말을 하지 않는다. |
| 제7전 태산대왕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 제8전 평등대왕 탐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
| 제9전 도시대왕 성내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 제10전 전륜대왕 샅된 소견을 내지 않는다. |

십전 십대왕	한국 저명 성씨를 60생에 배대한 고사조관
제1전 진광	경오생(柳) · 신미생(洪) · 임신생(申) · 계유생(權) · 갑술생(趙) · 을해생(韓)
제2전 초강	무자생(宋) · 기축생(兪) · 경인생(元) · 신묘생(黃) · 임진생(曹) · 계사생(林)
제3전 송제	임오생(閔) · 계미생(任) · 갑신생(南) · 을유생(徐) · 병술생(具) · 정해생(成)
제4전 오관	갑자생(李) · 을축생(金) · 병인생(朴) · 정묘생(鄭) · 무진생(尹) · 기사생(崔)
제5전 염라	경자생(魚) · 신축생(陸) · 임인생(蔡) · 계묘생(辛) · 갑진생(丁) · 을사생(裴)
제6전 변성	병자생(吳) · 정축생(姜) · 무인생(沈) · 기묘생(安) · 경진생(許) · 신사생(張)
제7전 태산	갑오생(呂) · 을미생(梁) · 병신생(禹) · 정유생(羅) · 무술생(孫) · 기해생(盧)
제8전 평등	병오생(孟) · 정미생(郭) · 무신생(卞) · 기유생(邊) · 경술생(愼) · 신해생(慶)
제9전 도시	임자생(白) · 계축생(奎) · 갑인생(康) · 을묘생(嚴) · 병진생(高) · 정사생(田)
제10전 전륜	무오생(玄) · 기미생(文) · 경신생(尙) · 신유생(河) · 임술생(蘇) · 계해생(池)

출전: <60인의 고사관 새로 태어나다>, 불교의례문화연구소, 2020.8.

사전 준비물 위패 :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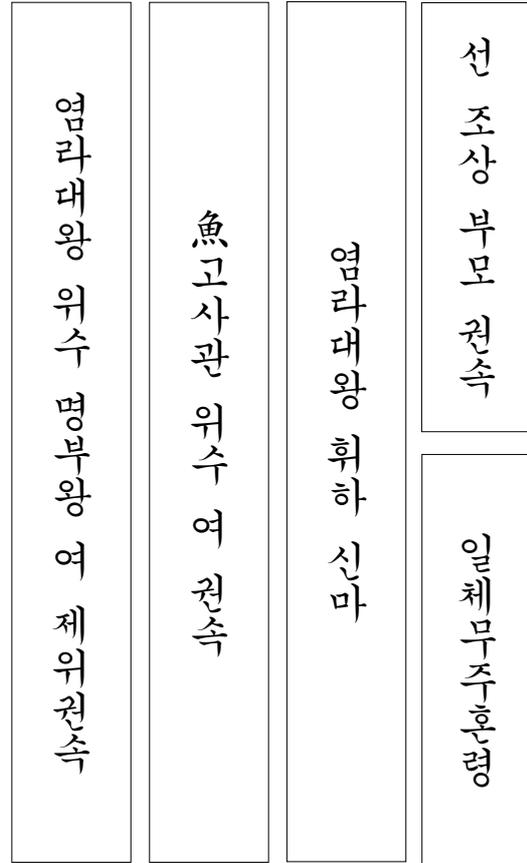
설판재자: 각 전·단 헌향·헌다, 승보공양

집사 4인: 각단에서 위패와 차를 받아 올림

집사 4인: 시왕 위목 등 위패 이운

60생에 따라 고사관과 신마가 다르므로 재자의 생년
참조하여 위패를 작성.

설판재자 (경자생) 염라대왕, 魚고사관



생칠재의범 편찬위원회

위원장 우일

위 원 우상, 우남, 우천, 우진, 우진, 우행

간 사 이서현

생전칠찰재[생칠재]의범

2022년 11월 21일 초판

2022년 11월 21일 재판

2023년 08월 19일 삼판

편역: 생칠재의범 편찬위원회

밴드 [사]세계불학원

펴낸 곳: 정우북스

펴낸 이: 우리 이미연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1231호

신고 1992.5.16. 제1992-000048호

전화 02) 720-5538

<비매품>